

말레이시아 화인소설의 억압된 기억 재현과 인물 창조*

— 黃錦樹의 <魚骸>를 중심으로

고혜림**

<목 차>

1. 서론: 말레이시아 화인소설
2. 소설 <魚骸>의 억압된 기억 재현양상
3. 소설 속 인물과 정체성 과제
4. 결론

1. 서론: 말레이시아 화인소설

말레이시아에서의 화인들의 역사는 말레이시아의 과거 역사의 복잡성만큼이나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힘들다. 초기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화인들은 혈통 중심적 문화와 언어적 문제로 인해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토착 말레이 통치자들의 무관심과 영국의 이민정책 덕분에, 주석 산업을 통해 경제적·물질적 측면에서 차차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화인들은 주로 영국인 행정관리와 교류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기 시작했고 복잡한 외부적 변화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토착 말레이 하층민들은, 이후 주석 산업을 장악한 중국인들과 영국의 관할 하에 있는 고무농장에 대량으로 고용된 인도인 노동자들과 함께 말레이 지역의 다인종·다민족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말레이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331).

**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현대중국문화연구실 연구원(huilin@naver.com)

아 내에서 화인들을 포함한 여러 이주민들은 역사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문화적·지리적으로 서로 격리된 상태로, 말레이시아의 구성원이 되었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배태되기 시작한 말레이시아 지역의 종족에 따른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오늘날까지 말레이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근대 초기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에 의한 강제적 점령은 그것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총체적인 형태 혹은 한 국가의 일부 지역에 한정된 부분적인 형태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겼던 것은 분명하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만행은 한국 기준 일제강점기의 시작인 1910년대부터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결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국 영화 《귀향》¹⁾, 《아이 캔스피크》²⁾가 일으킨 반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 국내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소녀상과 더불어 해외로 이어지고 있지만, 또 이와 동시에 여전히 일본 자국 내에서는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왜곡과 끊임없는 과거 역사 기억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과거 경험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점차 다문화, 혼종화로 나아가는 사회, 국경과 경계가 없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국경의 단위나 민족의 단위이기보다는 오히려 총체적인 글로벌과 특수적인 로컬들로 구분되기도 하며 혹은 이 둘을 동시에 글로벌³⁾로 부르기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초기에는 새롭게 강조된 '민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던 시기였으며 일제강점기는 이와 같은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말레이시아의 화인 소설은 위에서 언급한 일제강점기의 화인들의 고통을 다룬 소설도 있으며, 다문화, 혼종화에 관한 것을 다루는가 하면 화인들 자체의

1) 2016년 2월 개봉, 러닝타임 127분, 조정래 감독, 관객수 358만명(영화진흥위원회).

2) 2017년 9월 개봉, 러닝타임 119분, 김현석 감독, 관객수 328만명(영화진흥위원회).

3) 고희림, <글로벌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중국학논총》 56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2017.6, 217-246쪽 참고.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입장에서 는 낯선 곳,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통해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미국’만큼이나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다가온다. 혹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거점지역이자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볼거리 많은 관광지로, 또 북미·호주·영국·뉴질랜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투자대비 국제화 경험을 쌓기 좋은 떠오르는 ‘조기유학 대상지’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2008년 코트라(KOTRA)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말레이시아가 한국인이 선호하는 조기유학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생활 제반 여건과 국제학교의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조기유학 열풍·부동산 투자 바람·은퇴 이민 등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마이 세컨드 홈(Malaysia My Second Home)’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인의 비자 기간을 갱신하기 좋도록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화인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黃錦樹⁵⁾가 소설 속에서 작중인물에게 부여한 억압된 기억들을 문학적으로 어떤 방식과 양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진행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화인들의 문학적 활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이미 소개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고운선의 글 <경계인의 역사 반추하기>⁶⁾와 <이름-자리와 거리두기: 黃錦樹의 《남양인민공화국비망록》을 중심으로>⁷⁾ 등이 있다. 고운선의 글에서 黃錦樹는 중국적 정체성과 화인들 스스로

4) 성정현·홍석준, 《그들은 왜 기러기가죽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현장보고》, 한울아카데미, 2013 참고.

5) 黃錦樹(1967~현재)는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 클루앙 출신으로 1986년 타이완으로 이주, 타이완대학 중문학과 재학 당시 1990년에 발표한 <M의 실종>으로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젊은 시절 타이완, 말레이시아 문단에서 비판적인 인사와 활동으로 인해 ‘무서운 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黃錦樹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인식과 예술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왕더웨이 저, 김혜준 역, 《현대중문소설 작가22인》, 학교방, 2014, 575-608쪽 참고)

6) 고운선, <경계인의 역사 반추하기>, 《코기토》 No.79, 부산대인문학연구소, 2016, 117-155쪽.

7) 고운선, <이름-자리와 거리두기: 黃錦樹의 《남양인민공화국비망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86권, 중국어문연구회, 2018, 231-266쪽.

의 시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작가⁸⁾로 설명된 바 있다. 그리고 말라얀 공산당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더불어 제시하여 黃錦樹의 음니버스 소설집 《南洋人民共和國備忘錄》을 분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黃錦樹 문학 연구에 하나의 시각을 더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중국대륙,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과 학회, 학술잡지의 발행 등에 비추어 보자면 한국의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역시 '前단계'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물론 상기 학회와 학술잡지에서도 말레이시아 화인문학은 주변부의 것으로 다루어지고는 있다. 한국의 중문학 연구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레이시아 화인문학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문학은 주변부의 자장과 중심부 및 주변을 바라보는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변증법적 사례의 하나이다. 그리고 주변적 시각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또한 상당 기간 화인문학과 디아스포라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말레이시아 지역의 화인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제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張錦忠, 黃錦樹, 庄華興 編의 《回到馬來亞: 華馬小說70年》(2008)와 張錦忠, 黃錦樹, 黃俊麟 主編의 《故事總要開始: 馬華當代小說選》(2013)과 같은 소설집 역시 각기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에서 출판되긴 했다. 하지만 이 책들은 한국에 소개된 바가 없다가 2015년 말 번역서 《물고기뼈: 말레이시아 화인소설선》으로 출판되었고 이것이 국내에서 소설집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학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말레이시아 화인 사회의 역사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나아가 사회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인문학으로 유입된 로컬의 개념과 장소/공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근대화 과정을 겪고 국가나 인종, 혈통 등의 의미로 구분되어 오던 세계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로 부수적으로 야기된 초국가적 이동 현상, 그리

8) 고운선, 위 논문, 234쪽.

고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하나의 국민국가나 경제단위에 소속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인물 창조에 관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黃錦樹의 문학에 대한 이해에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소설 <魚骸>의 억압된 기억 재현양상

말레이시아 소설에서의 '화인'은 기존의 '화교'라는 용어와 범주 및 의미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의미의 중국인은 대개 중국 대륙 출신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중국 대륙 이외의 지역, 즉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위 중국계 사람들과 더 나아가 한국 및 일본, 북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면 훨씬 광범위한 지역적인 범주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이를 기존의 중국 대륙 사람을 주로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중국인으로 계속 지칭하는 데 대해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신분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에 어울리는 보다 객관적인 용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 시점에서의 합의는 중화의 '화(華)'를 빌려와서 '화인(華人)'을 사용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중국 대륙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주로 중국 대륙 이외의 지역, 즉 타이완·홍콩·마카오·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국계 사람들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화교(華僑)'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화교'는 사전적으로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사회적·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일컫지만 용어의 사용을 보면 주로 이주와 이민에 따른 1세대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억압된 기억들의 배경

이민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중국계 이주민의 후손, 고유한 문화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지에 동화되거나 혼혈로 새로운 인종의 형태를 구성하는 경우는 '화예(華裔)'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 개념이 '화인'으로 이는 세대 구분, 국적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대륙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될 것이다. 한국인이 쓰는 말을 한국어, 영미권 사람들이 쓰는 말을 영어라고 부르듯이 '화인'들이 쓰는 중국어의 갈래는 '화어(華語)'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한족이 쓰는 말에서 기인했다고 하여 '한어(漢語)', 혹은 중국인들의 말과 문학이라고 하여 '중문(中文)'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화어'로 표현된 문학은 '화문' 혹은 '화문문학(華文文學)'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 방식을 이용하자면 지역과 출신 계통 및 사용 언어까지 세부적으로 정의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작가들의 출신 국가와 스스로의 국가적 정체성은 말레이시아이며 문화적, 신분적 정체성은 화인이고 이들이 사용한 문학의 언어는 화문이므로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화인화문문학이 된다. 黃錦樹의 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화인 작가들은 영어, 타밀어 등으로도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럴 경우 말레이시아 화인영문문학, 말레이시아 화인타밀어문학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인구수는 물론, 눈에 띄게 부를 축적한 말레이시아 화인들은, 다른 종족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孫文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국민당을 추종하는 세력과 193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한 毛澤東의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 영국 식민지정부에 말레인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졌는데, 말레이시아 지역이 아닌 중국 대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1920~30년대 말레이-중국인들의 이러한 정치의식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간

과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일본 점령 하의 인도-말레이시아 지역은, 원자재 공급 주력 식민지로 전락했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性) 노예로 전락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태국과 미얀마의 철도 공사에 끌려가는 등, 말레이시아 식민 역사에서 볼 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장 혹독한 식민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말레이인과 인도인에게 反英의식·反백인종 의식을 심어주고자 했지만, 자신의 母國이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던 중국인들은 오히려 이 지역의 대표적인 '反日세력'으로 성장했다. 원래 좌익 계열 말레이인과 좌익 계열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말라야공산당(Malayan Communist Party, 1930년대 창설)은, 이러한 중국인의 反日감정을 자극하여 더 많은 공산당원을 확보했고, 마침내 말라야공산당 내에 말라야인민항일군(Malayan People's Anti-Japanese Army)까지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했다. 포로로 잡히지 않은 영국군들은 이러한 말라야인민항일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국지전을 치렀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말레이시아 지역에 다시 영국 군정 체제(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가 들어섰을 때, 말라야인민항일군은 그 공을 인정받아 영국 군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굴곡을 거쳐 지금의 말레이시아는 만들어졌다. '말레이어-이슬람교'의 말레이인(인구의 50% 이상), '중국어-중국 민간신앙'의 화교(인구의 22% 이상), '타밀어(Tamil language, 스리랑카·말레이시아·싱가포르·남인도 지역의 인도인 공용어)-힌두교'의 인도인(인구의 8% 이상) 및 그 외 토착 말레이 소수민족·태국인·스리랑카인·주변국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1981년 총리에 당선된 마하티르 모하마드의 개발주의 정책⁹⁾을 거쳐 오

9) 정치 부문에서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경제 부문에서의 국가 주도형 개발이 결합된 정치체제를 정치학에서는 통상 '개발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타이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은, 독립 후 민간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 자국 경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했다. 식민지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정치적 종속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본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반

늘날과 같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黃錦樹의 소설 <魚骸>는 화인 청년이 항일 유격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어린 동생과 가족들을 남겨두고 한밤중에 홀로 집을 떠나 그 뒤로 실종되어 사망 처리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가족 몰래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된 청년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청년의 동생인 소설의 화자는 형의 실종으로 인해 갑골 연구에 병적으로 매달리며 자아를 억압하는 폐쇄적인 성격으로 자라나게 된다. 갑골 연구에서의 귀감을 구하고 실험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의 은밀함과 비밀스러움, 그리고 형을 찾고자 오랜 세월 동안 역시 그늘 속에서 살아 온 주인공 화자, 가족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형과 다를 바 없는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은 黃錦樹 자신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또 다른 자아의 이면으로 짐작되기 까지 하는 여러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억압된 기억이라는 것은 말레이시아 문학과 말레이시아 화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경험과 식민주의 지배논리 속에서의 소외와 배제 및 억압을 경험한 혼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이는 곧 '식민주의가 심어놓은 타자성에 대한 인식과 소외 논리'¹⁰⁾에 대한 경험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중국대륙에서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중국적 정체성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공산당원들과 그들의 주변 화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정체성의 현재 시점에서의 서술로도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까지, '아시아의 기적', '동남아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정치 영역에서의 '장기집권'과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은, 종족 간 계급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예상과 달리, 정부의 특혜가 일부 말레이인에만 집중되어 오히려 말레이인 내부의 소득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사키 이쿠오(岩崎育夫) 저, 최운봉 편역, 《아시아국가와 시민사회》, 을유문화사, 2002참고)

10) 고운선, 위 논문, 248쪽.

(2) 소설 속 억압된 기억의 재현양상

黃錦樹의 <魚骸>에서 재현되는 주인공의 억압된 기억들을 구분하고 이들을 어떠한 분류기준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살펴보겠다. 크게 나누자면 黃錦樹의 소설은 다음의 몇 가지 큰 카테고리로 억압된 기억의 재현양상을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기억들은 은유적이고 간접적 서술로 특징지어진다. 매우 은유적인 분위기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魚骸>에서 주인공의 무기력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에의 간접적인 서술로서 소설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남은 금색 빛이 푸른 편지 위를 비추었는데 비스듬하고 무력한 글자의 흔적들은 오래도록 축약된 세월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기억의 어떤 층차 속에 묻어 두었던 시간 속으로 그를 빠져들게 했다.¹¹⁾

이미 오래 전 죽은 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처럼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고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만들어버리는 기억에의 천착과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렇듯 분위기를 조성하는 은유적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묘사도 나타나고 있다. “동양의 오래 되고 나이 든 거대한 용은 즐곧 탈피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피를 수혈 받고 있었다. 남방에서 자라 온 모든 화족 자제들은 깊이 고무 받았고 쉴 새 없이 자처해서 혁명의 자녀들이 되었다.”¹²⁾ 또 ‘은신처에서의 삶’과 같은 경험 역시 인물의 감정과 억압된 기억들을 점점 더 표출하기 힘든 것으로 만들

11) 金色餘光斜照在藍色信箋上，傾斜無力的字跡卻好似鬆開了久經壓縮的歲月，令他陷落在某段在記憶裡埋沒的時間裡。〈魚骸〉，《烏暗暝》(黃錦樹，臺北：九歌出版社，1997)，황진수 저，고운선，고혜림 역，《물고기뼈》，지만지，2015，7쪽.

12) 東方古老巨龍始經蛻皮換血，所有生長於南方的華族子弟都深受鼓舞，紛紛自詡為革命的兒女。〈魚骸〉，《烏暗暝》(黃錦樹，臺北：九歌出版社，1997)，황진수 저，고운선，고혜림 역，《물고기뼈》，지만지，2015，16쪽.

어갔을 것이다.

두 번째, 억압된 기억은 또다시 부정적 기억의 집합체로 격렬한 분노의 감정 혹은 격동적인 행동들과 함께 묘사되기도 한다. 큰형이 어른들이 반대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주인공의 호기심을 유발했다고 설명되는 부분¹³⁾이다. 또한 소설의 중반부의 내용과 같이 자신만의 '실험'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묘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실험'은 복잡하지 않았다. 우선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담배 머리 쪽을 거북의 꼬리에 일단 가져다 대고 거북 머리가 나오는 일순간에 재빨리 칼을 쓴다. 우선 그것의 머리를 잘라 낸 뒤 다시 사지와 꼬리 부분을 잘라 내어서 위아래 껍질 사이의 근육을 갈라 벌린다. 어떤 경우는 그것들의 배 부분을 (남아 있는 거북 똥이 빠져나오는 것을 피하려면) 잘라 낼 필요가 있기도 했다. 그리고는 곧장 오븐에 넣고 굽는데 10분 이내에 바로 '부(卜)' 하고 거북이 내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면 전기술에 넣고 맑은 물에 삶으면 맑은 탕이 된다. 그의 목적은 그것으로 먹는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귀갑을 얻으려는 것이다. 다 먹고 난 후 귀갑이 남게 되면 씻고 그늘에 말려 며칠을 놓아둔다. (중략) 종종 밤이 깊고 사람도 없는 시각이 되면 그는 약에 취한 사람처럼 홀로 비밀스러운 취미를 만끽했고 거북을 먹고 조용히 거북의 말을 들으면서 남몰래 점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 신비로운 방술을 실증하게 되는 것이다. 갑골문을 새기고 옛날의 실험을 따라 하는...¹⁴⁾

13) 因而在父母憂愁擔心的臉上直覺的意識到他是在秘密的做著什麼父母反對的危險事情，也誘發了他的好奇心。〈魚骸〉，《烏暗暝》(黃錦樹，臺北：九歌出版社，1997)，황진수 저，고운선，고혜림 역，《물고기뼈》，지만지，2015，11-12쪽.

14) 〈實驗〉並不複雜，首先是燃起一根香菸，菸頭往龜尾一燙，在龜頭伸出的一瞬間手起刀落。先斷其頭，再斷其四肢和尾部，切開上下甲之間的肌肉。有時只需剝去牠的肚腸（以免殘留的龜糞礙事），即可置於烤箱內烤食，十分鐘內即可聽到清脆的〈卜〉的一聲龜語；或於電鍋內清蒸，啜其清湯。他的目的為的不僅是吃，同時也是為了取得龜甲。吃完後，可以把龜甲留下，洗淨，陰乾，置上數日。之後，刮去背甲表皮的膠質鱗片，刮平鱗片交疊處的紋路，並把高低不平處削平，再將它鋸開成兩片，用不同號數的砂紙把它磨平磨滑，晶亮晶亮如玉石。接著，用鑽子在龜貝上同樣的部位鑽孔，以便穿繩成冊；用鑿子在上頭鑿出淺孔，以便卜灼之用。往往在深更人定之時，他就可以如嗜毒者那般獨自享用私密的樂趣，食龜，靜聆龜語，暗自為熟識者卜，以驗證這一門神祕的方術。刻畫甲骨文，追上古之體驗……。〈魚骸〉，《烏暗暝》(黃錦樹，臺北：九歌出版社，1997)，황진수 저，고운선，고혜림 역，《물고기뼈》，지만지，2015，27-28쪽.

‘귀갑’을 만들고자 고증적으로 과거의 갑골을 얻는 방식을 위해 수렵과 살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이를 무감정하게 ‘실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는 극도의 분노의 표현과도 맞닿아 있다. 무의식적인 감정의 차단은 마치 스위치를 꺼둔 것처럼 오랜 기간 쌓아 두거나 가뒀던 분노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억압된 분노는 한동안 자신을 향하다가 결국 외부로 향하게 된다. 이미 증명된 실험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면서 결국 희생되는 생명이 있다는 점은 무감정한 ‘실험’이라는 이름 뒤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은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처 즉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버린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의 파편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방어기제인 회피로 묘사되고 있다. “몇 해 동안이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 없다. 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심각하게 의존하게 되곤 한다.”¹⁵⁾는 부분은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억압된 기억인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회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물론 그 원인은 형의 뒤를 밟아 밤늦게 경험한 트라우마적 사건¹⁶⁾이 직접적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 속에서 형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채 죽음의 본능인 프로이트 분석학의 타나토스만이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렸던 화자는 정신을 잃다시피 한 채로 아침에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그리고 회피는 어느 순간 다시 감정의 전적인 차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대륙에 대한 ‘아무런 감상이나 감정이 들지 않는 것’¹⁷⁾이 바로

15) <魚骸>, 《烏暗暝》(黃錦樹, 臺北: 九歌出版社, 1997), 황진수 저, 고운선, 고혜림 역, 《물고기뼈》, 지만지, 2015, 8쪽.

16) 自霧中走出十幾位紅頭綠衣的士兵, 在水邊踩下重重疊疊的腳印, 鐵打似的臉上盡是殺氣, 肩挎著長槍。有幾位士兵兩人一組的倒拖著獵物的腳, 一共拖出五具兀自冒著鮮血的屍體。他不敢趨前, 只是一逕的瞪大了眼睛, 看: 也不知道是希望還是極不希望從中辨識出不久前走進霧裡的那人。士兵發現了他, 其中一位惡狠狠地朝他跨來, 卻被另一位帶頭模樣的喝止。那人用他不懂的話問了幾句, 他不點頭也不搖頭, 一逕的貼著樹, 緩緩坐下。<魚骸>, 《烏暗暝》(黃錦樹, 臺北: 九歌出版社, 1997), 황진수 저, 고운선, 고혜림 역, 《물고기뼈》, 지만지, 2015, 13-14쪽.

17) 妻子兒女岳丈岳母及同事們全去了不只一次, 他還是默默無動於衷。<魚骸>, 《烏暗暝》(黃錦樹, 臺北: 九歌出版社, 1997), 황진수 저, 고혜림, 고운선 역, 《물고기뼈》, 지만지, 2015, 19쪽.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극도의 냉담함, 바꾸지 못하는 마음 상태, 오랜 습관, 건조한 대답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매번 집에 돌아갈 때에도 부모형제와는 오래된 고목이라도 된 것 마냥, 서로 몇 마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물어볼 뿐 그 외에는 상대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다. “몸은 괜찮니?”/ “네.”/ “돈은?”/ “있어요.”¹⁸⁾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서로 데면데면한 상태로 안부만 물어볼 뿐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질 않는다는 점 역시 극도의 방어기제로서의 회피, 감정의 차단으로 파악된다. 결국 “폐쇄적이지만 최소한 ‘안전’하기는 한 세계(那是一個雖然封閉但至少<安全>的世界)”를 만든 것이다.

질은 어둠 속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거북 배 껍질 위에 그가 직접 손으로 새긴 글자를 만지자니 마치 패를 만지작거리는 노련한 도박꾼처럼 부호의 질감에서 일종의 익숙한 느낌이 들게 했다. 이것은 항상 그에게 극도로 회상하고 싶지 않은 것을 떠올렸는데 청소년기에 정신이 긴장되면 끝없이 되풀이하며 그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꿈이었다. 꿈의 원형은 실제 사건이었던 것이다.¹⁹⁾

억압된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하고 있다가 불현듯 나타나고 현실감각마저 사라지게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소설의 위의 인용 부분처럼 묘사되고 있다. 주인공이 경험한 청소년기의 기억들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이처럼 느닷없이 자아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꿈에서 종종 등장하던 불안한 장면들은 실제 주인공이 과거 겪었던 사건들의 반복과 재연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黃錦樹의 <魚骸>에서는 억압된 기억들이 극도

18) 甚至老家也很少回去，數十年來還回不到十趟。每一次回去，越到後來，與父母弟妹猶如枯木相同，只能聊幾句最簡單的家常，此外便是默默相對。 <身體好嗎？>/<好。>/<錢夠用嗎？>/<夠。><魚骸>，《烏暗暝》(黃錦樹，臺北：九歌出版社，1997)，황진수 저，고운선，고혜림 역，《물고기뼈》，지만지，2015，22쪽.

19) 在黑暗中以大拇指輕輕的撫摸龜腹甲上他親手刻上的字，仿如摸牌的老賭徒，對符號的質感有一種親切的體會，常令他想起那極不願去回想的、年少時每當神經緊張就會重複做的一個令他甚為不安的夢。夢的原型是一樁真實的事件。<魚骸>，《烏暗暝》(黃錦樹，臺北：九歌出版社，1997)，황진수 저，고운선，고혜림 역，《물고기뼈》，지만지，2015，36쪽.

로 은유적으로 배경화되어 묘사되거나, 부정적 기억의 집합체로 분노로 표출되거나 혹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트라우마화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억들에 대한 반추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고 주인공의 뒤를 쫓아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더라도 혹은 억압된 기억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회피하더라도 다시금 주인공이 그 곳으로 소환되거나 기억들이 주인공이 있는 곳으로 소환되어 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3. 소설 속 인물과 정체성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속 억압된 기억의 재현 양상은 크게 서술 기법 상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서술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대체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배경화되어 묘사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서술은 감정적인 폭발과 함께 서술되거나 혹은 극도로 절제된 표현으로 감정이 차단된 상태로 서술이 되고 있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해를 입은 말레이시아 화인들의 당시 상황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 보면서 본고에서는 다시금 이러한 서술로부터 파생되는 인물들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노와 트라우마로 얼룩진 억압된 기억들을 통해 볼 때 소설 속 화자가 겪고 있는 자아의 억압적 상태는 신경증적으로 진단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소설의 첫머리에서도 이와 같은 억압된 정신 상태에 대한 짐작이 가능한 구조로 서술이 시작되었다.

<魚骸>는 갑골문과 관련 있는 문헌들 가운데 <自序>, 《觀堂集林》, 《泊陽訪古記》, 《童溪易傳》, <龜策列傳> 등의 글귀들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소설 속 화자가 갑골에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파고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정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강박은 결국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억압된 스트레스로 해석할 수 있다.

실상 고증학적인 학문에 대한 집착과 끝없이 되풀이되는 귀갑 실험에의 집착은 화자의 무의식 속에 자리 한 변화에 대한 트라우마 자체일 수도 있다. 작중인물의 어려서부터의 삶은 소설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끝없는 혼란과 격동의 변화 속에 내던져져 있어 왔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어쩌면 그 자신의 자아를 먼저 박제시켜버렸는지도 모른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기력감, 더 나은 미래가 당장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한 심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에 더해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더해져 지금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에서 등장한, 책이라고 한 권으로 부르기도 힘든 “불완전한 형태의 책 한 권(一本殘缺的書)”²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을 대체하는 인물과도 같았던 長白山으로부터 받은 몇 장의 종이들이다. 이렇듯 불완전한, 미완의, 알 수 없는, 겨우 남은 몇 가지의 등등의 수식어로 설명되는 것은 바로 黃錦樹 자신의 파편적 기억에 대한 반복되는 언어적 표현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소설의 말미에 언급되는 것처럼 그의 좌절된 욕망, 즉 큰형과 함께 있고자 했던 욕망, 큰형을 위험에서 구하고자 했던 욕망, 결국 잃어버리게 된 큰형을 다시 스스로 되찾고자 하는 욕망²¹⁾은 다시금 죄책감이 되어 그를 공격하게 되었다.

黃錦樹의 《死在南方》²²⁾에서 표현된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張錦忠이 지적한 바²³⁾와 같이 아버지에게 대한 초창기와 최근의 글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魚骸>에서는 주인공이 의지하고 따르던 큰형으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다. 黃錦

20) <魚骸>, 《烏暗暝》(黃錦樹, 臺北: 九歌出版社, 1997), 황진수 저, 고운선, 고혜림 역, 《물고기뼈》, 지만지, 2015, 35쪽.

21) 長兄失蹤之後, 潛入那片沼澤深處一探究竟是他成長期間揮之不去的慾望。<魚骸>, 《烏暗暝》(黃錦樹, 臺北: 九歌出版社, 1997), 황진수 저, 고운선, 고혜림 역, 《물고기뼈》, 지만지, 2015, 42쪽.

22) 黃錦樹, 《死在南方》, 山東文藝出版社, 2007.

23) 張錦忠은 “黃錦樹의 글에서 나타나는 모든 아버지의 뒤에는 거대한 세계가 따로이 있으며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헌정이다”라고 표현했다. 張錦忠, <散文與哀悼>, 《焚燒》, 麥田出版社, 2007, 8쪽

樹의 소설에서 ‘아버지’, ‘실종’, ‘표류’, ‘죽음’에 대한 원형들은 다양한 상황과 설정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주인공의 정체성의 구성요소 중 큰 부분은 위의 몇 가지 어휘들과도 긴밀하게 관계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게 될 때 내부로 향하는 폭력성과 공격성은 줄어들게 되며, 포용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물론 작가 자신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소설에서 표현된 주인공에 대해서만 본다면 무의식의 표면 위를 떠다니는 자아가 있고,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체성의 확립이 그 방향성과 혼란함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민 말루프의 말처럼, “‘경계인’은 날 때부터 그렇거나 삶의 여정 속에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거나, 고의적인 의지에 의해 그렇게 되었거나 간에 여러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균형추를 이런 저런 방향으로 기울게”²⁴⁾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복합적이면서 단 하나의 것으로 규정될 수 없기에 오는 혼란함에서 빠져나와 스스로가 복잡성이자 혼종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유령처럼 캠퍼스를 떠돌거나 집에서도 투명인간처럼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결국 되찾았으나 해결되지 않는 신경증적 강박과 두려움 및 트라우마들은 현재의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자아와 성격의 구성요소들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설 속 ‘그(他)’는 줄곧 큰형의 죽음 이후 온전한 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www.kci.go.kr

24) 아민 말루프 지, 박창호 역, 《사람 잡는 정체성》, 2006, 50-51쪽.

4. 결론

19세기 후반부터의 영국 식민지 정책에 따라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으로부터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들의 접촉지대로 기능해왔으며 문화 횡단의 복잡성이 뿌리 내린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임은진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접촉구역은 “인종 및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한 차이가 지식이나 재현과 같은 권력을 통해 전유되어 온 지리적 역사적 흔적 그대로 드러나는 곳”²⁵⁾이므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한계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인종의 따른 인구 구성에 있어서 중국계는 2015년 말레이시아 통계청 자료(Population by ethnic group, Malaysia, 2015) 기준 6,578,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확고한 국민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화교 협회, 화교 학교, 화교 신문사 등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계말레이시아인들은 중국이라는 모국은 국민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이나 선조의 기억을 간직한 고향으로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²⁶⁾

임은진은 말레이시아 화교의 단결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부미푸트라 정책’²⁷⁾을 들고 있다. 2009년 나지브 라작(Najib Tun Razak)총리 취임 후 부

25) 임은진, <국제적 인구 이동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역성>, 《한국도사지리학회지》 제19권2호, 한국도사지리학회, 2016.8, 92쪽

26) 임은진, 위의 글, 96쪽.

27) Bumiputera policy: 인종에 따른 부와 권력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국가 정책. 인종간 부의 편중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 초대 총리 압둘 라흐만(Tunku Abdul Rahman)에 의해 시작된 이 정책은 1970년대 신경제정책을 통해 20여 년간 말레이계의 경제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부미푸트라에 대한 특권들이 아예 ‘제도화’되기도 했다.(Daniels, 2010), 임은진 98쪽.

미푸트라 정책은 재검토되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하나의 말레이시아’라는 뜻의 ‘사투 말레이시아(Satu Malaysia, 1 Malaysia)’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안, 차이나이즈 말레이시안, 인디아 말레이시안 세 민족을 하나의 말레이시아로 수렴하는 새로운 정책인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지역성은 다민족사회, 종족집단별 독립적 경제 영역 점유, 중국계의 말레이시아 내 경제적 우월성 점유로 인한 종족 갈등의 원인 제공, 1969년 중국계와 말레이계의 유혈 충돌 등으로 설명된다. 중국계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주도하고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하면서 타국의 땅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반면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의 입장에 놓여있다.

黃錦樹의 소설이 난해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의 학문적 수준과 역량뿐만 아니라 문학적 어휘의 선택은 여타 지역의 화인 작가들의 화문소설과 비교해도 매우 뛰어난 수준에 속한다. 특히 <魚骸>는 말레이시아 화인들이 경험한 과거에 대해서 화자인 ‘그’를 통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중화자인 ‘그’의 경험 속에는 말레이시아 화인들 특유의 역사적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에 더해 작가 자신의 경험을 상당부분 녹여냈을 것으로 짐작되는 깊이 있는 작중 인물의 감정 변화와 내적 갈등, 성격화 부분 등은 더욱 인물을 생동감 있고 살아 숨 쉬는 화인의 현상태로 소환해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黃錦樹의 의도와 그의 학술적 문체 등이 어우러져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외 화인의 문학적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黃錦樹, <魚骸>, 《烏暗暝》, 臺北: 九歌出版社, 1997.
 黃錦樹, 《死在南方》, 山東文藝出版社, 2007.
 張錦忠, <散文與哀悼>, 《焚燒》, 麥田出版社, 2007.

- 황진수 저, 고운선, 고혜림 역, 《물고기뼈》, 지만지, 2015.
- 왕더웨이 저, 김혜준 역, 《현대중문소설 작가22인》, 학고방, 2014.
- 아민 말루프 저, 박창호 역, 《사람 잡는 정체성》, 2006.
- 이와사키 이쿠오(岩崎育夫) 저, 최운봉 편역, 《아시아국가와 시민사회》, 을유문화사, 2002.
- 朱崇科, <如何中華文化, 怎樣本土文學?>, 《華南師範大學學報》 第4期, 華南師範大學, 2016.8, 156-161.
- 溫明明, 王天然, <從失蹤到重寫: 論黃錦樹馬共題材小說中的“父”>, 《華文文學》 第149期 2018.06, 84-89.
- 王植, <中文、現代主義與認同迷思: 關與黃錦樹《欠缺》的討論>, 《華文文學》 第131期, 2015.06, 117-121.
- 고혜림, <글로컬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중국학논총》 56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2017.6, 217-246쪽.
- 고운선, <경계인의 역사 반추하기>, 《코기토》 No.79, 부산대인문학연구소, 2016.2, 117-155쪽.
- 고운선, <이름-자리와 거리두기: 黃錦樹의 《남양인민공화국비망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86권, 중국어문연구회, 2018, 231-266쪽.
- 김동식, <식민의 역사, 동아시아의 기억>, 《영상예술연구》 Vol.12, 영상예술학회, 2008년, 2-28쪽.
- 임은진, <국제적 인구 이동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역성>,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8, 91-103쪽.
- 임채완, <지구화시대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활동과 모국>, 《한국국제정치학회지》 48(1), 2008, 243-266쪽.
- 홍석준,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지역연구》 2(4), 1993, 101-122쪽.
- Wei Zhou, Jun-Eon Park, *Language Attitude of Ethnic Chinese in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외국어교육》 Vol.24, No.3, 2017, 171-193쪽.

< Abstract >

Reproducing Suppressed Memories and Character Creation of
Malaysian-Chinese Novel

Koh, Hyelim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repressed memories of Ng Kim Chew, one of the writers representing the Malaysian-chinese literature, in a certain way and in what aspects are reproduced in literature and what its meaning is. For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literary texts an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speciality of Malaysian-chinese society must be preceded. Furthermore, understanding of local concepts from sociological aspects should be set. It should also be recognized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who have undergone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have been separated by national, ethnic, or lineage, are no longer be parted within a national or economic boundaries. This is an era of transnational movemen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people living across borders for various reasons. With this study, I expect it to be meaningful to suggest another perspective on Ng Kim Chew's literature in the specific field of study.

The reproduction of repressed memories in the novel was largely expressed in terms of narrative techniques, either direct or indirect. It used a method that was described in literary terms in a largely metaphorical way. And again, the author described it with an emotional explosion, and sometimes with emotion blocked by an extremely restrained expression. Describing the circumstances of the damaged Malaysian-chinese, whether they like it or not, this article can be seen as a way of grasping the message of the characters derived from these narratives. From the suppressed memories stained with anger and trauma, the repressive state of the self that the narrator is experiencing in the novel is severe enough to be diagnosed neurotically.

Key words: Malaysian-Chinese Novel, Suppressed Memories, Chinese Identity,
Ng Kim Chew, Yuhai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2.09	2019.02.12	2019.02.22	2019.03.07	2019.03.31